

테스트 대회 두 달 앞 ... 야간 작업 강행군

평창 올림픽 중봉 경기장 건설 현장 '시간과의 시투'

● 지난 20일 정선 활강경기장 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 한쪽의 월 스케줄 보드판에는 일정이 빼곡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사무총장, FIS(국제스키연맹) 미팅에, 이달 들어서만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현장 방문 일정이 두 차례나 적혀 있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첫 테스트 이벤트인 내년 2월6일 FIS 알파인 남자 월드컵 대회를 불과 2개월여 앞둔 공사 현장 분위기는 치열하고 급박했다.

활강경기장은 지난해 5월 착공했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사업비 확보, 난공사 등 각종 요인이 뒤섞여 당초 임시 사용이 가능한 시기인 11월보다 늦어진 상황이다.

현 공정률은 40%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FIS는 내년 2월 대회를 위한 최종 공사 완료 시점을 '1월 20일'로 정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만에 하나 기한 내 공사가 어렵다면 유럽이나 일본으로 개최지가 바뀔 수 있고, 이럴 경우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대한 국제적인 신인도 하락을 부르는 등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고 있다.

정선 활강경기장의 내년 2월 테스트 이벤트 개최는 '2018 평창'의 당면 현안이 됐다. 더욱이 경기장 건설의

183만㎡ 스키장 공정률 40%

FIS "완료시점 내년 1월20일"

점프 구간 4곳 고도 기술 필요

대외 신인도 위해 마감 사활

직접적인 책임은 도에 있는 만큼 그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도동계분부는 활강경기장 공기 맞추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선군 북평면 속암리 일대 상·하

부 3.5km에 183만㎡ 크기의 스키장을 위해 야간 공사는 물론 크레인과 포클레인, 덤프트럭 등 100여대의 장비와 150명의 건설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또 스키장 곤돌라를 위해 세계적 로프웨이 업체인 오스트리아 도펠마이어(Doppelmayr)의 현지 기술자들이 2배 이상 증파, 현장을 돕고 있다.

다음 달 동절기를 앞두고 이달 내로 해발 1,370m 정상 부근에서 980m 하부까지 22개의 곤돌라 철탑을 세워야 하는데, 현재까지 8기만 설치되는 등 일정이 촉박하다.

최근 잦은 비로 가뜩이나 점토 성분이 많은 건설 현장이 진흙밭으로 변해 인력이나 장비 투입에 애를 먹고 있다.

더욱이 경기장은 경사각 45%의 점프 구간 4곳 등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장용수 정선 알파인 경기장 건설공사 감리단장은 "공사 관계자 모두 고된 업무에도 글로벌 축제와 국가적 대외신인도가 우리의 땀방울에 좌우된다는 일념하에 공사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정선=류재일기자 cool@kwnews.co.kr



◇지난 20일 2018평창동계올림픽 첫 시험대에 오를 정선 중봉 알파인(활강)경기장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정선=오윤석기자

주택·건설·건축 최신 트렌드 눈앞에 펼쳐집니다

주택·건설·건축엑스포



홈페어2015

GANGWON ECO HOME FAIR

25일부터 나흘간 춘천시 열려 지역업체 우수제품 대거 선보여 자치단체 홍보관도 함께 운영

강원엑스포홈페어 2015-주택·건설·건축박람회가 오는 25일부터 나흘 동안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이 대거 출품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관련 업체와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강원건설단체연합회와 강원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도와 춘천시를 비롯한 18개 시·군이 후원하는 도내 최고의 주택·건설·건축 종합전시회 행사다.

특히 지역 주택·건설·건축 관련 모든 제품이 한자리에 전시됨에 따라 업체와 소비자, 업체와 지자체 간 연결을 통

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일반 주민들의 경우 홈인테리어 기자제 및 가구와 실내 인테리어, 전원주택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내 집을 꾸미는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시회에 참여하는 업체와 대상품목은 △건축자재 △전원주택 및 주택 정보 △인테리어 기자제 △건설장비 및 가구 △가구 및 인테리어 등으로 각 분야를 대표하는 업체들이 특색 있는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관광, 농특산물 등을 전시하는 홍보관도 운영돼 참가업체들이 새로운 판로 개척은 물론 각 지자체의 주력사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람회 관람료는 무료이며 관람객에게는 26일부터 28일까지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특별 기념품을 증정한다. **히우윤기자**



◀관람객들로 북적이는 지난해 강원엑스포홈페어 2014-주택·건설·건축박람회 모습.

강원일보DB

환경친화적 생태복원구조물 생산 호평

국제철망 춘천의 (주)국제철망(대표:노정환·사진)은 환경분야사업, 하천정비, 도로보수 수해방지시설 등에 필요한 생태복원구조물을 생산하는 회사로 자연환경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환경친화적 중소기업이다. 이 업체의 주요 제품인 물방개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및 홍수로 발생하는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법면·도로사면에 활



용되고 있다. 용접철망은 콘크리트 포장 시 콘크리트 사이에 넣거나 타일, 시멘트 보강 등에 사용된다. 특히 높은 인장강도와 절근의 콘크리트 부착력을 공유하는 이상적인 자재로 평가받고 있다. 2012년에는 강원도로부터 유망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합성목재 분야 국내 최고 기술력 평가

백항우드 춘천의 (주)백항우드(대표:양홍춘·사진)는 전문건설업(금속구조물, 항호공사업)과 제조업(합성목재, 디자인형틀타리)을 병행하는 회사다. 각종 합성목재, 천연목 관련 제품과 시설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공간 창출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5년, 성능인증 2건 및 다수



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원도 고층 우수기업과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조달청 우수제품 조달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 업체가 생산하는 합성목재는 데코로드시스템, 자전거동로, 체육시설, 조정시설 등에 사용되는 국내 최고의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기술 적용한 '수중튜브펌프'로 주목

비에이텍 춘천의 비에이텍(주)(대표:조세연·사진)은 수중펌프, 원심펌프, 부스터펌프 등 모터펌프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로 지역 중소기업의 한계를 넘어 세계를 향하는 강소기업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있다. 비에이텍의 주요 제품은 하수관거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하수맨홀



프의 관련 기존 제품의 단점인 유압 부유물의 걸림을 방지하고 고수의 배출을 쉽게 하는 수중튜브펌프이다. 이 제품은 사용자의 편리성과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새로운 데커니즘의 신기술 수중펌프로 평가받고 있다.

내구성 우수한 조립식 스테인리스 개발

서대프렌트(주) 춘천 서대프렌트(주)(대표:김요시·사진)는 현대사회 발전에 발맞춰 경제적인 산업프린트 부분에 기여하고 있다. 2003년에 설립해 전문 기술인들이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조립식 스테인리스 이중관 연도 및 연들을 공급 중이다. 또 각종 산업현장에서 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단열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조립식 스테인리스를 개발,



경쟁적이며 효율적인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발주처와 도급자의 뜻에 맞는 완벽한 설계도면 제작, 안전한 시공 및 사후관리까지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 전반에 최선을 다해 환경, 안전, 고객과의 동반성장 등을 실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자연형 하천 전문 벤처로 전국적 명성

태흥산업 양양 포일농공단지에 위치한 태흥산업(주)(대표:강장봉·사진)은 자연형 하천 전문 벤처기업으로 생태복원 지오네트, 식생바구니, 고리형 개비문, 식생매트, 펜스난간 등을 개발해 도를 비롯한 전국에 공급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자체 개발한 '생태복원 지오네트'를 비롯해 '고리형 개비문', '라운드 개비문' 등이 있다. 특히



'생태복원 지오네트'는 특허제품으로 정부의 친환경 하천공사 정책과 맞물려 전국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 업체는 이번 강원엑스포홈페어 2015 참여를 계기로 모두에게 친숙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도 대표하는 도로안전시설물 전문기업

효명 춘천 퇴계농공단지 본사를 두고 있는 (주)효명(대표:심기용·사진)은 도로안전시설물 전문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도내 최초로 도로용 가드레일을 직접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가드레일 승용시험에 합격, 전국 6개 기업 중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을 정도로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았다.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자체 개발에 성공한



교량난간, 개방형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등은 충격 흡수, 원상회복, 구조물 보호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제품으로 대부분이 현재 특허 출원된 상태다. 또 충격완화용 자전거동로 난간, 신개념 공법의 확장형 인도교 등도 생산해 신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평창군 3505억 편성

올해보다 150억 증액

내년도 평창군 예산안이 올해보다 150억 6200만원 (4.48%) 늘어난 3505억 3500만원으로 편성됐다.

평창군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37억 5900만원 (4.87%) 증가한 2960억 1600만원, 특별회계는 13억 300만원 증가한 545억 1900만원이다.

예년 예산안의 주요 세입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241억원, 세외수입 167억원으로 올해보다 27억원이 늘어났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올해보다 126억원 증가한 2949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2018평창 올림픽 준비를 위한 급수체계 구축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특구도시경관정비사업 등

대회기반시설에 362억원,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183억원, 올림픽홍보 사업에 18억원 등이 편성됐다.

또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문화유산 보존 관리 등 98억원을 편성하고 테마관광지 조성, 지역축제 활성화 등에 55억원,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설확충에 97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농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잘사는 농촌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생산 유통 지원에 101억원, 특화 신소득작목개발 등 농업기술개발 보급에 184억원, 축산경쟁력 강화 및 축산물 위생 유통 선진화사업 44억원을 편성했고 건강한 숲과 풍요로운 산림 휴양공간 조성사업에 137억원을 배정했다.

평창/신현태 sht9204@kado.net

정선군 3277억 규모

기업유치 등 배정

정선군이 내년 당초예산안을 올해보다 9억원 늘어난 327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22일 정선군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올해 2904억원보다 6억원 증가한 2910억원, 특별회계는 364억원보다 3억원 증가된 367억원 등 총 3277억원 규모로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851억원을,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은 2126억원, 조정교부금과 보전수입은 3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주요 세출예산은 △토속음식 304프로젝트와 계곡수 체험장 30억원 △아리랑철도 여행상품 개발 15억원 △근촌캐릭터마을을 비롯한 특화마을 조성 32억원을 편성했다.

농업분야는 △유기질비료 지원 20억원 △자두 특화단지 조성 4억원 △특산품 재배 신기술보급 8억원 △곤드레 음식 관광활성화 9억원 △소포장재 지원 6억원 △가축경쟁력 강화 5억원 등으로 올해보다 22억원이 증액된 425억원을 책정했다.

특히 정선사과 명품과원 조성은 올해보다 3억원이 증가된 11억원을, 농경지 배수로와 저온저장시설은 7억원이 증액된 16억원으로 농업경쟁력을 키우는데 예산을 배정했다.

또 △우수기업체 유치 육성에 23억원 △소상공인 시설 개선과 중소기업 지원 15억원 △농촌 생활우수 개발 등 가뭄해결 50억원 △군립병원 설립에 70억원 등을 편성했다.

정선/박현철 lawtopia@kado.net

양양군 내년 예산 2646억원

올해보다 321억원 증가

내년 양양군 당초예산이 2646억 9700만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2325억 3500만원보다 321억원 6200만원이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2479억 9000만원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 아름다운 수산항 가꾸기 등 국비지원사업이 대폭 증가하면서 올해 2181억 4500원보다 13.7%인 298억 4500만원이 늘어났다.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은 △농림·해양수산, 산업, 수송·교통, 국토·지역개발 등 경제분야가 전체 예산의 29.3%인 723억 8790만원 △복지, 보건, 환경,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 42.9%인 1064억 8091만원 △재난방재, 민방위 등

이 3.5%인 87억 812만원 △기타 분야 24.3%인 603억 3995만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특별회계는 167억 800만원으로 올해 143억 9100만원보다 16.1%인 23억 1700만원이 증가했다.

예산안은 오는 25일에 개최하는 양양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7일 확정된다. 양양/최훈

태백시 내년 예산 3018억 편성

내달 시의회서 확정

태백시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258억원 (7.9%) 감소한 301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태백시에 따르면 2016년도 일반회계는 총 2544억원으로 전년 대비 42억원 (1.6%) 감액 편성됐다. 특별회계도 474억원으로, 전년 대비 216억원 (31.3%)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가 전체 예산의 42.7%를 차지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분야에 631억원 (21.8%), 환경분야에 631억원 (20.9%), 농·산업 및 중

소기업 활성화 분야에 188억원 (6.3%), 교육분야에 43억원 (1.4%)을 각각 투자한다.

시 관계자는 "신규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교육사업 증대, 시민복지 증진,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역점을 뒀다"며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보증채무 150억원 상환으로 재정위기단체 극복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도 태백시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열리는 제21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태백/김우열

주간 입찰동향

442억 '법성~홍농 국지도 확포장' 26일 개찰

조달청, 2788억 규모 집행
세종시 학교시설 5건 '관심'
LH, 제주삼화아파트 등 2건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이번주(11.23~27) 전라남도 수요의 법성~홍농 간 국가 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총 75건, 2788억원 규모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지난주 대비 입찰건수가 17건 늘어남에 따라 전체 집행금액(추정가격 기준)도 1000억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방법별로는 최저가낙찰제 방식의 대형공사는 1건이고 65건은 적격심사, 나머지 9건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업계의 관심 물량은 최저가 방식으로 집행할 법성~홍농 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로, 추정가는 442억원 규모이며 오는 26일 개찰이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이번주에는 세종시교육청 수요의 학교시설 건설공사 5건에 대한 개찰이 집중돼 있어 지역건설사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우선 24일에는 각각 142억원과 121억원 규모의 새롬고등학교 신축공사와 보람중학교 신축공사 입찰이 집행된다.

25일에는 152억원 규모의 글벗유·초등학교 신축공사 입찰이 예정돼 있고 26일에는 각각 132억원과 125억원 규모의 가덕유·초등학교 신축공사와 소담고등학교 신축공사 개찰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286억원 규모의 한국원자력 의학원 신개념 치료기술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 복합연구센터 신축공사가 24일 집행되며, 135억원 규모의 고막원천 다시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5일 개찰이 예정돼 있다.

또 26일과 27일에는 220억원 규모의 울산시립도서관 건립공사(울산시)와 158억원 규모의 태백스포츠타산업단지 조성사업(태백시), 125억원 규모의 울진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정수장 설치공사 입찰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번주에는 전체 집행건수의 약 96%인 72건의 공사가 지역제한입찰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으로, 전체 집행금액의 절반이 넘는 1421억원 상당을 해당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와 전남도가 각각 675억원과 603억원 규모로 가장 많은 가운데 서울시 322억원, 경북도 248억원, 강원도 227억원 등의 순이 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는 이번주 추정가격 1153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입찰 2건을 집행한다.

이는 지난주(1567억원, 2건)에 비해 입찰건수는 같고 입찰금액은 414억원 줄어든 것으로, 입찰 물량과 금액에 큰 변동이 없어 입찰금액이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번주에는 제주삼화 1-1BL 아파트(공공임대리츠) 건설공사 5공구(930억원)를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가격개찰을 집행해 눈길을 끈다.

목포용해2 6-1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223억원)도 적격심사 방식으로 집행해 귀추가 주목된다.

봉승권·채희찬기자 chc@